— 1 —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49 1981년6월25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June 25.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21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9184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손해배상 피해자에게 "인종차별 청구권 없다"

—연방대법원서 중요 판결—

(오타와) 연방대법원은 22일 인권에 관한 2개의중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인종차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했고, 알버타주가 인디안의 유전지내 우선 취업 특별프로그램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인디안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온타리오항소법원은 세네카·칼리지로부터 취업을 거부당한 푸쉬파·바두리아여인에게 세네카·칼리지를 상대로한 민사소송 제기권한을 부여했었다.

바두리아여인은 자신이 고용되지 않은 것은 학교측의 인종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학박사학위, 온타리오교사자격증, 7년간의 교직경험을 가진 바두리아양은 74년부터 78년까지 4년간 세네카·칼리지에 10번 취업희망서를 냈었으나 한번도 인터뷰조차 못했다.

온타리오법원의 판결은 "사회가 온타리오권리헌장에 의한 인권을 옹호한다면 이같은 권리는 권리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함,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은 봉급, 정신적 피해, 인격모독에 대한 배상이다.

이에대해 이번판사 전원일치의대법원판결은이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법제도에도 유례가 없으며 원고가 할 일은 온타리오인권옹호위원회가 내린 절차에 따라 대학측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알버타 에너지자원보존위원회가 머레이지역 유전회사에게 인디안들의 우선고용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40억달러상당의 오일·샌드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84% 가 우편파업 찬성

유급출산휴가 문제가 관건

연방정부가 29일 자정부터 시작될지도 모르는 우편노조원(CUPW) 2만3천명의 일제파업을 막으려면 유급 출산휴가 17주간을 인정해야한다.

24일 장·클로드·패로 캐나다우편 노조조합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노조원의 84%가 파업을 단행한다는 데 찬성투표했다.

이것은 우편노조 사상최고의 지지율이다.

오타와에서는 정부측·연방재정위와 노조측 대표가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노조는 전국의 우편분류담당자들과 서기직 직원의 조합이다. 우편배달부들은 따로 노조를 결성하고 있다. 우편배달노조는 앞서 올해에는 파업을 않기로 결의했었다.

우편 노조측이 추산한 바로는 정부가 우편노조의 요구대로 유급 출산휴가를인정해줄 경우 드는 예산은 노조원의 시간당 임금에 2센트씩 1년 30달러가 더 필요한 셈이지만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다른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해야하므로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유급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은 6개월이상 근속한 노조원으로 출산휴가가 끝나면 반드시 직장으로 복귀, 또다시 6개월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와 노조간에 타협을 보아야할 다른 사항들은 총12일의 추가 법정공휴일제정, 야근기본수당인상, 5년이상 근무자의 연 4주휴가, 보건및 안전규정보강문제 등이다.

우편노조는 합법적으로 29일 자정을 기해 스트라익을 단행할 수 있다. 패로 조합장은 파업단행시기는 앞으로 추진되는 협상의진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패로 캐나다전국 우편노조조합장

전대통령부부 등정 15일간 동남아순방

(서울25일=연합)대통령과 이순자여사는 25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타일랜드및 필리핀등 아세안 5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15일간의 동남아순방을 위해 이날아침 11시10분대통령 전용기 보잉707에 오른 대통령부처는 김포공항에서 수백명 환송인사의배웅을 받았다.

대통령은 첫 기착지인인도네시아에 4일간 머물면서 수하르토대통령과 일련의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방콕, 마닐라를 순방한 후 6월9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산신발류에 활로 미, 수입제한 폐지

(워싱톤24일=연합)리간미국대통령은 한국과 대만에 대한 신발류수입제한을 풀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6·25 특별연재■

캐나다군의 참전

참전자 2만7천명중 포로는 단33명뿐 ②

캐나다 지상군은 전쟁이 한창일때 참가했지만 캐나다 해군구축함「가유가」「아다바스칸」,「시요우」3척은 이미 북한군 공격개시단 15일만에 전투에 들어갔었다. 이들은 큰 해전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 함정들은 때로는 위험스럽고 능동적 역할을 수행했다. 3구축함 외에도명성높은 군함「이로키오스」,「휴론」,「크루세이더」등이 한국해역에 출정했다.

한국전 참전에응한 캐나디안의 열성은 패트리시아부대가 전투참전 전 집중훈련 기간에 있었던 일화에서 잘 나타난다.

부상으로 후송되어온 병사중 16명은 만성 기관지염, 심장병, 고혈압등을 가진 병사들이었다.

중에는 의족을 짚는 청년, 노인등도 있었다.

오타와에서 장병열차에 오르면서 친구들에게 "굳바이"인사 한마디를 한 사람은 수주후에 캘가리의패트리셔 연방장에서 볼수있었다. 징병시작 19일만에 8천명이 모아졌다. 이것이 동란중의 대략적 캐나다군 전력이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일년제 단기복무를 원했다. 육군은 연인원 21,940명이참전했고, 해군은 연인원 3,621명, 공군은 주로 수송병과지만 1,104명이 참전했다. 이 공군력 중에서22명의 전투기 조종사들이미제5공군과 같이 참전했다.

전쟁후에도 한반도의 긴장이 수그러질때까지 약7,

의 시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다.

50년대 서방세계를 보면 놀랍다.

히틀러는 진짜 악마가어떤것인가를 보여 주었다.

이 악마가 물러가자 평화는 커녕 무자비한 철면피 스탈린이 등장했다. 공산권에서 도망나온 사람들은 "악마중의 악마는 여기있다"고 고발했다.

그리스 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미쳐 날뛰는 내전이 있었다. 또 서베르린에서는 공산비밀 경찰에의해수십명이 납치 되었다. 소련은 미국이 알라스카를 사기쳐 갔으니까 자기네한테 되돌려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는 간첩과 오열분자

한국전이 나자 캐네디안들은 참전을 열렬히 원했다.

이들은 병새를 숨기고완전무장 100마일 행군, 산악훈련과 한국의 험한 겨울에 대비한 눈속이나 진흙탕속의 야영등을 견디어냈다.

고급장교들은 이것은 지원군만이 할수있는 강인성이라고 표현했다.

전국의 장병지원소에는 문을 열기도전 이른 아침부터 수백명의 지원병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들

000명이 유엔군에 남아있었다.

전사자는 314명이었고부상자는 1,211명에 달했다.

공산군에 잡힌 포로중캐네디안은 놀랍게도 적은불과 33명 이었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군이 한국전에서 보여준 용맹과 규율의 척도인 것이다.

왜 총 26,600여명의 병사가 모여 공산군을 죽이려 했을까? 1980년대인 지금

들에대한 공포로 가득찼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 주은래, 임표등 공산주의자들이 전래의「황전적」처럼 전국곳곳을 누볐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려운것은 히로시마 공포의 재등장 이었다. 스탈린 50년까지는 원자탄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됐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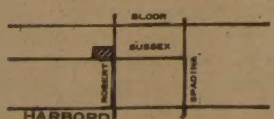
서방세계는 심리적 불안상태에 빠졌다. (계속)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여러분의 삼복식품
①물오징어 BOX당 $12.95
②조기(굴비용) BOX당 $55.50
③물미역 BOX당 $44.50
④미역줄기 BOX당 $44.50
⑤당면 BOX당 $120.00
⑥냉면 BOX당 $45.80
⑦이면수 1 lb당 $2.95 (½price)
⑧삼치 1 lb당 $2.25 (½price)
⑨한국산고추가루 lb당 $3.45
⑩한국산 동태 1 lb당 $1.25
743-8270

운동구점 개업
여름휴가 특별세일
①GOLF
●Slazenger Golf Shoes
Reg. $71(×) 세일가격 $49.00
●Hush Puppies Golf Shoes
세일가격 $36.98
②단체유니폼 마춤
각 동창회및 교회주문 환영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VARSITY스포츠점
967-7304 이건영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토론토대학, 학위취소 결정

박사학위 논문 표절

토론토대학 153년 역사상 처음으로 박사학위 취소 소동이 일어났다.

4년간에 걸친 법정투쟁끝에 토론토대학은 박사학위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판정을 받고 길리암 유디씨의 학위를 회수 하는 동시에 그의 논문을 대학도서관에서 제거키로 결정했다.

로스안젤레스에서 정신박약아를 지도하고 있는 유디씨는 "그같은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그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곧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유디씨는 1974년 토론토대학에서 「발음과 비교 독해력및 청각력」이란 논문으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3년뒤 위스콘신 대학의 켄트·데비스 교수는 토론토대학에 편지를 보내 유디씨 논문의 일부가 자기논문을 도용했다고 알려왔다.

토론토대학 청문회에서 유디씨는 자기는 누구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토론토대학 당국자는 학위 반환뿐 아니라 학적부에 이 사실을 기입하고 캐나다 전국 도서관에 이 논문의 제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관광 유치행사

몬트리얼, 180명모여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 지난 17일저녁 퀸·엘리자베스호텔에서 대한국제관광공사, 대한항공 공동주최의"한국의 밤"행사가 있었다.

몬트리얼의 여행사 경영자들이 주빈으로 초청된이날 행사에는 약 180명이참가했으며, 한국측에서는대한국제관광공사 홍승철뉴욕사무소장, 대한항공한석송 토론토소장, 김창훈몬트리얼총영사, 정명규무역진흥관장, 정주현영사등이참석했다.

토론토 KAL근무 Amanda A·Riede양 사회로 열린이날 행사에서 홍승철뉴욕소장은 유창한 불어로한국에관한 소개와 장래의관광전망등을 말했다.

사회자 아만다양은 재치있는 유모어로 모임을 진행시켜 나갔으며, 자기는 KAL에서 일하기전 한국이라면"MASH"(미군의무대의 6·25 참전TV극)에서나 보는 한국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30년전의 일이고, 발전한 한국을 사진에서보고 또 들을때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소망피력도 했다.

주최측은 와인과 치즈로 내빈들을 접대했다.

이날 대한관광공사 제작 한국관광안내 영화상영 및 행운상 추첨도 있었다.

KAL은 지난 16일 오타와에서도 이런모임을 가진바있다. (한국일보— 토론토 6월19일자)

KAL에 $682만 차관

캐나다수출공사서 제공

(서울25일=연합)캐나다 국제무역담당 에드워드·럼리장관은 24일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대한항공(KAL)의 승무원훈련장비구입을위해 미화 682만달러를 차관해 주기로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KAL을 이차관으로 퀘벡주생·로랭시의 CAE전자회사로부터 보잉747기의 승객서비스용 시설장비를 구입한다.

럼리장관은 한국정부 관리및 경제계 인사들과 상호경제협력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21일 서울에 도착, 5일간 체재한다.

장학재단 골프

김창갑씨 우승

캐나다한인 장학재단 이지난20일 글렌세다 골프장에서 가진 이사및 관계자회에서 김창갑씨가 76점으로 그로스1등을 차지했다. 「파」는 72점이다.

이날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그로스
1등 김창갑 76
2등 최상수 77
3등 정창현 79
4등 곽창수 79
5등 차선겸 79

◆넷트
1등 김진기
2등 김영옥
3등 심재환
4등 나종수
5등 장동섭

●롱게스트·트라이 차자윤
●니어리스트 나종수
●모스트·어니스트 이 억

◆베스트10

곽창수, 김영옥, 김진기, 정창현, 강태룡, 엄주익, 장인수, 원장호, 나종수, 심재환.

기픈 소리

—6·25—

피묻은 손

— 한번 돌리세요
444-4011을 —

안 상 엽

어느나라 어느민족이라고 전쟁과 싸움을 모르는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만주와 중공과 쏘련이라는 비대한 몸에 마치 엄지손가락 정도로 달려있는 "코리아"는 비록 반만년역사를 가졌다고 자부하나 웬일인지 그 흰옷에 먼지와 때와 핏자욱이 지워질 날이없다. 외적의 총칼에 맞아죽고 짓밟히기 보다는 동족끼리의 살상이다. 동인과 서인, 북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문인과 무인간에 서로 물고 뜯고 찢는역사가 더 많다.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망하리라"한 성서의 말씀대로 성하고 흥할날이 없다.

왜 세사람만 모여도 패를 짓고 싸우는 백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30세 이상의 한국사람이라면 뼈아프게 체험한 비참한 역사가 있다. 지금부터 31년전인 1950년 6월25일은 북인이 남인을치고 달려든 민족전쟁일이였다. 고요하고 평화스런 주일새벽은 민족의 목구멍에서 피가 솟구치고, 젖가슴과 창자가 터져 산야를덮는 민족의비통으로 가득했다. 폭풍같이 몰려온 이 비극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만해도 "평화통일선거"라는 기치를 높이 쳐들고 사절단을 보내는등 헛웃음판이였고 뒤에서는탱크와 비행기와 전투병력을 준비했었다. 남인들에게는 한대의 탱크도 없었으나 북인들은 242대와 또 211대의 전투기로 땅과 하늘을 덮었다.

세계전쟁사중에 가장 좁은 땅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했으나 승패가 없었고, 가장 많은나라의 군대들이 하나의 싸움터에서 가장 많은피를 쏟은 잔인한 전쟁이었다. 밀리고 미는 전쟁중에 죽은 사람도 많으나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도 많다. 스위스에있는 "적십자국제위원회"에 송환의뢰한 사람만 해도 김규식, 조소앙, 안재홍씨등 해서 7034명이였고, 백만인의 서명으로 송환을 간청했으나 오늘까지 아무대답도 없다.

출애굽 역사중 애굽에 있었던 "피의재앙"같이 "코리아"땅의 물은 피색으로 변했고, 1951년 6월23일에제안된 휴전은 538회라는 대소모임을 거친후 2년만인 1953년 7월27일 오전10시 "5조63개항"의 휴전조항에 "헬리슨"중장과 "남일"의 서명으로, 151마일의 전선에는 10시간내에 모든 총소리가 멈추었고, 이제 28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5만번의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같은 민족이지만 남인과 북인간에 얼마나 긴장하고있고, 또한 살기가 돋은 눈을 뜨고 밤을 샌지도 30년이 된 것이다.

서로가 "근대화"를 주장하고, 경제성장을 자랑하고 있으나 수많은 고지와 능선에는 아직도 피흘린 자욱이 남았고, 독한 파리가 나르고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제땅을 자기발로 짓밟으려는 전쟁의 무기는허리가 굽도록 무겁게 실어졌다. 누가 누구를 또 죽이려는 악마의 장난인지 모르겠다.

손을펴도 하나님은 눈을 그곳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심은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때문"(이 1:15—16)이라고 예언자는 선포했다. 실상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사는길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의 길이 아니며, 정치나 경제,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손에 묻은 피를 씻고, 각자가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스스로 깨끗함으로 악을 도모하지 말고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므로"(이 2:4)싸움의 준비와 연습을 그만두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섬기면서 공의를 좇아 선행을 행함으로만 민족과 국가가 하나로 살것이다.

(토론토 한인 선교교회 담임)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⑲

팔리·모왓 원작, 원제홍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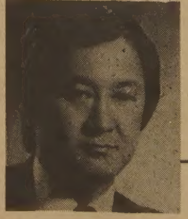
아이는 프란쯔에게 뛰어들어 팔에안기며 기뻐서 어쩔줄을 모르는것 같았다. 두번째의 집 보따리는 형용하기 어려운 집꾸러미같이 주빗주빗걸어 나와 나를보더니 갑자기멈추어 섰다. 그것은 사슴가죽으로 몸을싼 13살먹은 사내아이였다. 그는 어색하게 프란쯔옆에 서더니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봐도 잘 안보이는 납짝한 코위로 입술이 말려올라가면서 회죽회죽 웃기 시작했다. 그의큰 이빨이 나에게 번쩍 빛을발하고 있을때 나는 완전히 홀린것 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내가 찾고자하는 바램 사람들의아이들 이었기 때문이다. 프란쯔의 팔에안긴 조그만계집애는 그를다시 만나보는 즐거움을 억제할수 없다는 듯이 마구 지껄이며 바둥거렸다. 프란쯔는 어떤가하면 그의 까만눈이 눈물에 젖어있었다.

드디어 그는 어린아이를 팔에서 내려놓았다. 그애는 나이에비해 작아 보였지만 5살도 채 못된것 같았다. 그애는 자기오빠 한테로 가면서 처음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금방 새쭉해 지더니 언덕위에 세워놓은 작은 우상처럼 서있었다. 프란쯔는 그를 가리키며 "쿠니",그리고 소년을 가리키며 "아노티일릭"하고 소개한다. 그것은 매우 궁색한 소개였지만 나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우리가 모두 언덕을 내려가서 부수어진 집을고치고 물에 젖어 엉망이 된 것을 청소하면서 나는 쿠니가 프란쯔의 아이가 아닌가하고 생각해 봤다. 나의 존재는 아이들을 매우 수줍게 만들고 한스에게는 참기어려운 행동의 부자연을 주었다. 그는 하도 오랫동안 혼자지냈기 때문에 드문드문 만나는 그의 형과의 접촉도 꺼려했다. 백인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나로 인하여 한스는 완전히 움추러들었다. 그는 전혀 나한테 말한마디 걸지않고 마치 황량한 그의 땅에서 위험한 짐승을 쏘아보듯이 나를 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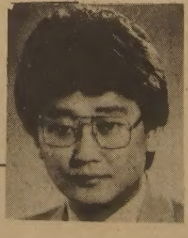
그의 살결은 형의 살결보다 훨씬 검었고 그의 얇은 얼굴을 받치고 있는 가늘고 나약한 뼈 위에 탄탄하게 씌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휑뚫려 있고 나의 얼굴을 스치는 눈동자는 덫에 친 여우가 닫아오는 복수의 여심을 바라보는 듯한 불안한 눈동자와 같았다.

그러나 어린애들의 수줍음은 결국 어린이다운 수줍음이었다. 잠시후에 애들은 나를 곧 잊어버리고 오두막집 주위로 뛰어다니며 서로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아노티일릭은 젖은 스토브에 곧 불을 지피고,큰 여자를 줄여 놓은 것 같은 쿠니는 강 물을 떠와서 몇분후에는 모두가 차를 마실 준비가 되었다. 양철로 만든 찻잔에 차를 따르고 나자 쿠니는 프란쯔의 무릎에 편하게 앉아서 담배를 솜씨있게 말았다.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5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수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라스만스」회사 부설
소매경영학 연구소가 한국인 상점
경영자들을 위해 만든 경영학 강좌

RSI

〈라스만스·오브·펄멀 캐나다 유한회사〉는 소매업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깨닫고 소매상들의 수익을 높이고 경영방식을 능률화 하기위한 무료강좌를 마련했읍니다.
이 강좌는 어떤 종류의 소매업에도 적용이 되는 소매경영학 입문을 비롯, 보다 전문적인 경영학 코스도 계속됩니다.
이 강좌에서는 라스만스회사 담배를 더 많이 팔도록 권고받는다던가 하는일이 결코 없읍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 강좌를 거쳐나간 7백여 상점주들이 증명합니다.
이 코스를 시작할때 요구되는 디퍼짓 $25은 코스가 끝남과 동시에 되돌려 받게 됩니다. 수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재로 채택된 RSI편찬의 〈소매경영학〉책과 각종 부교재, 한국인 통역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평소에 상점을 경영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어려움— 그것을 RSI강좌가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여름철 防疫·水害대책 추궁

국회保社·建設委개최 政府보고·政策질의

"금년 콜레라再發우려" 千保社
"洪水예보등 컴퓨터化" 金建設

국회는 22일하오 保社委와 建設委를 각각 열고 千命基 보사장관과 金周南 건설장관으로부터 여름철 防疫對策과 災害대책에대한 정부측 보고를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保社委에서 의원들은 최근의 장티푸스예방접종의 副作用 사고등을 집중 추궁했고 建設委에서는 水害常襲地에 대한 항구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保社委

"豫防접종 自動주사기導入"
"水害방지용 多目的댐건설"

民正黨의 文炳良, 民韓黨의 金完泰, 議政同友會의 金正秀 의원등은▲장티푸스예방접종 사고의 진상과▲접종의 副作用防止策▲水因性전염병에대한 구체적대책▲1회용注射器의 개발등에 관해 질의했다.

千命基본사장관은 이날 답변을통해 『현재 자동주사기는 1백34대가 있는데 日本에 20대를 긴급發注했다』고 말하고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가정통신문을통해 종용해도 좋으냐는의견을 물은뒤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千장관은 夏季防疫대책보고를 통해 『정부는 종합방역체제를 수립,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早期발견에 역점을 두고있다』고 강조하고 『금년도 예방접종은 콜레라, 장티푸스등 7개 질병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백46만여명이 더많은 2천3백4만명으로잡고있다』고 밝혔다.

千장관은 『전염병오염지역 여행자의 증가로 81년도에도 콜레라再發이 우려되며 정부는 금년度의 콜레라예방접종 목표를 지난해보다 6백만명 더많은 1천만명으로 확대, 1천5백6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염병중 장티푸스, 일본뇌염은 土着化했으며 홍역, 백일해등은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千장관은 『최근의 장티푸스 예방접종부작용의 발생은 단시간내 다수인에게 예방접종으로써 접종량의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예진이 소홀했으며 접종전후에 禁忌및 주의사항등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千장관은 예방접종부작용이 재발되지않도록 앞으로는 예방접종시 가급적 의사를입회토록 하고 82년까지 전국 보건소에 자동주사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建設委

民正黨의 李漢東, 民韓黨의 許景九, 金炯來 申元淳의원 등은▲해마다 막대한 災害 대책비가 投入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建設업체 중장비의 水害對策동원여부▲半영구적 災害대책시설의 조치등에 관해 질의했다.

金周南건설장관은 답변을통해 『항구적인 대책으로 多目的댐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洪水예보를 컴퓨터化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미 준공된 5개의 다목적댐에 5차5개년계획중 6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작년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6개월동안 전국적으로 水害常襲地 7백97개소를 조사, 1천계사업으로 1백63개소를 개선대상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이 지구에 대해서는 年次別 계획에따라 1984년까지 상습지를 일掃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열리면 選良들, 특히 初選의원들은 모처럼의 對政府공세로 신바람(?)이 나지만 장관들은 무척 피곤하다。22일 국회 保社·建設委에 출석한 千命基보사장관㊤과 金周南건설장관은 예방접종사고와 水防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추궁에 답변을 하느라고 땀을 뺐다。

사드르大統領 逮捕令
이란議會 彈劾의결 호메이니, 職位해임
대규모 穩健派 숙청작업·强硬3頭體制가능
强·穩派 곳곳流血충돌…死亡30명, 處刑14명

【테헤란21日AP·AFP=聯合】이란의회는 21일 온건파지도자 바니 사드르 대통령의 「정치적무능」을 이유로 그를 탄핵하기로 의결함으로써 회교지도자 호메이니옹의 그의 대통령직을 박탈할수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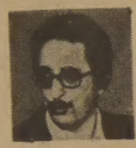
이와함께 회교혁명법원은 현재 도피중인 바니 사드르 대통령이▲회교 공화국법을 어기고▲집단세력들의 反政운동을 사주하는 동시에▲수감자들의 단식투쟁을 고무했다고 지적,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정식발부했다.

의회는 이날 바니 사드르 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에대한 2일간의 심리를 마무리지으면서 그의 탄핵안을 찬성1백77표, 반대1표, 기권11표로 가결했다.

라프·산자니의장은 이탄핵결의안이 즉각적으로 호메이니옹에게 제출될것이며 호메이니옹은 대통령 해임여부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호메이니옹이 바니사드르를 대통령직에서 해임시킬경우 대통령권한은 회교강경파의 3대거두로 알려진 베헤시티大法院長, 라자이수상, 라프·산자니국회의장등 3頭體制에 의해 잠정인수될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혁명법원은 이날 바니사드르 대통령에대한 공개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바니사드르가 『그에게 부과된 혐의를 회피하기위해 도피중』이라고 밝히고 그는 아직도 국내에 머물고있다고 말했다.



◇사드르대통령

이란당국은 이와함께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을 심판하기위한 의회심의가 시작된 20일 테헤란 시 중심가에서 親 바니사드르 시위를벌인 혐의로 체포됐던 14명의 좌익행동대원들을 전격적으로 처형했다。

이란의 관영 파르스통신은 바니사드르 지지자들의 시위가 20일 테헤란 이스파한 마샤드 타브리즈를비롯한 전국 각지방의 주요도시에서 발생했으며 테헤란 등지에서는 최소한 30명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 22日路透=聯合】아야톨라·호메이니옹은 22일 바니사드르 대통령을 의회 탄핵결정에따라 대통령직에서 해임했다고 국영 파르스통신이 보도했다.

사드르, 프랑스로 國外脫出한듯

【앙카라21日路透=聯合】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은 터키를 통해 이란을 탈출한것으로 믿어지며 현재 그가 거처하고있는곳은 알수없으나 최종 목적지는 그가 과거수년간 체류했던 프랑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터키정부관리들과 소식통들이 21일 전했다。

全대통령、월터즈美大使접견
헤이그 中共방문결과등 報告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22일하오 청와대에서 버논·월터즈美 巡廻대사를 접견, 헤이그 美 국무장관의 中共방문결과와 韓美간의 상호관심사에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월터즈대사는 이에앞서 盧信永외무장관을 방문, 헤이그 美 국무장관을 수행,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中共을방문한뒤 이어 아세안확대外相회의가 열렸던 마닐라를 방문하고 21일하오 來韓했다。

월터즈 美순회대사는 이날 1시간30분간에 걸쳐 헤이그 美국무장관의 北京방문을통한 中共당국자들과의의견교환내용을 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

全대통령 아세안 巡訪日程
靑瓦臺서 발표

全斗煥 대통령은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아세안 (東南亞국가연합) 5개국巡訪을 위해 공식수행원 20명을 대동하고 오는 25일상오 11시 金浦공항을 출발, 14泊15일간의 순방일정을 마친뒤 오는 7월9일하오 귀국한다고 李燦熙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발표했다。

全대통령은 巡訪도중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 말레이지아의후세인·온수상, 싱가포르의 李光耀 수상, 泰國의 프렘수상과 각각 한차례씩 頂上회담 또는 首腦회담을 가지며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는 두차례의 頂上회담을 갖게된다。

全대통령은 또 순방기간중 방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질예정이며 頂上회담도는 首腦회담이 끝난뒤에는 각각공동성명을 발표할예정이다。 공식수행원은▲申秉鉉부총리겸기획원장관▲盧信永외무▲周永福국방▲朴鳳煥동자부장관▲방문대상국 駐在대사(韓宇錫駐인도네시아、崔浩中駐말레이지아、李相玉駐싱가포르、楊泰雄駐泰國、宋光楨駐필리핀대사)▲金璟元대통령비서실장▲鄭東鎬경호실장▲金善吉상공차관▲李圭孝건설차관▲金炳薰대통령의전수석▲禹炳奎무제1수석▲金在益경제수석▲許三守司正수석비서관▲李雄熙공보수석▲閔炳奭대통령主治醫▲崔在澤장군▲金準植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孔魯明외무부政務차관보▲金炯根의전실장▲崔東鎭駐韓국장등20명이다。순방일정은 다음과같다。

印尼 ◇25일▲상오11시=金浦공항출발▲하오=자카르타 할림국제공항도착、환영행사、수하르토 대통령내외주최 공식만찬 ◇26일▲상오=영웅묘지헌화、頂上회담▲하오=경제장관과의 오찬、자카르타시청방문 ◇27일▲낮=인도네시아商議회장주최 오찬▲하오=수하르토 대통령내외 고별인사、발리섬도착 ◇28일▲하오=발리州知事주최만찬

말레이지아 ◇29일▲하오=쿠알라룸푸르 수방공항도착、국회의사당광장에서 환영행사、國王부처주최만찬 ◇30일▲상오=국립현충탑헌화、韓·말레이지아수뇌회담▲하오=駐말레이지아 재사 리셉션

싱가포르 ◇7월1일▲상오=국왕부처 대통령내외에게 작별인사、포트스웨텐햄空港도착、이스타나宮서 환영행사▲하오=李光耀수상과 회담、싱가포르대통령내외주최 만찬 ◇7월2일▲상오=주롱공업단지관리청방문▲하오=李光耀수상내외주최 만찬

泰國 ◇7월3일▲상오=돈무앙공항도착、환영행사、방콕시청방문▲하오=국왕부처주최만찬 ◇7월4일▲상오=승리탑헌화、韓·泰수뇌회담▲하오=泰國수상주최 리셉션

필리핀 ◇7월5일▲낮=방콕기자클럽회견▲하오=대통령내외주최 오찬연설및 기자회견 ◇7월6일▲하오=마닐라국제공항도착、환영행사、마르코스대통령내외 주최만찬 ◇7월7일▲상오=제1차頂上회담▲하오=무명용사비헌화、한국참전용사비헌화、대통령내외주최만찬 ◇7월8일▲하오=제2차頂上회담 ◇7월9일▲하오=서울도착

休講·早期終講 申告토록
李文敎지시 大學學事日程 반드시 지켜야
規定·法적용 기피하는「溫情主義」탈피를

李奎浩문교장관은 22일 전국 89개 대학과 11개교육대학 총·학장들에게 『앞으로 휴강이나 조기종강을 부득이해야 할때는 미리 신고하고 그로인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충토록하며 학기가 끝날때마다 교수와 학생이 지난학기의강의를 평가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우리 대학은 이제 양적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돼야할 시점에 왔다』고 강조하고 『대학내에서 되풀이 돼온 총학의구습을 타파하고 새기풍을창조하는데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李장관은 또 대학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으로▲휴강과 조기종강을 막고▲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대학간의 협력체제를 개발하며▲대학내의 규정과 질서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교수가 한시간의 강의를 빠뜨려도 적당한 구실로 종강을 며칠만 앞당겨도 이는 목인될수없는 태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엄격한 규정과 법의 적용을 기피하는 온정주의(溫情主義)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대학인의 의견은 신뢰해야하지만 학생이 교칙을 어기면 그것으로 학생신분은 끝난다는것을 알아야할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대학간의 협력체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안으로▲특수시설과 장비의 공동이용▲교수교환▲대학간 공동과목개설및 상호학점 인정▲대학연구소간의 공동작업및 정보교환등을 제시했다。

李장관은 이어 『잘못된것을 고치려면 저항을 받게되고 소리가나게 마련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수준높은 대학을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가되자』고 호소했다。

어제 전국大學 總學長회의
兵役특혜 주기로
敎授요원 碩士2천명선발

문교부는 22일 서울世宗문화회관에서 전국대학총학장회의를 열고 내년도대학생정원은 교원및시설확보、대학명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지역별균형이유지되도록 조정하고 대학의 교수요원확보를위해 내년부터 전국의일반대학원에서 2천명이내의 대학원생을 선발、이들에게 병역특혜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교부가 선발할 교수요원은 인문계40%、자연계 60%이 격자 병역대상자중에서 국가가실시하는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하도록 했으며 이들에게는 대학원입학금、수업료、생활비등이 지원되며 2년간의 석사과정후 6개월교육후 보생관과동시에 예비역에 편입해주도록했다。

문교부는 또 학생지도문제에대해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이해및 대화체제를 확립키로하고▲학도호국단활성화▲학이어울로기비판교육강화▲학예술활동권장▲장학금확충▲부업알선적극화▲대학생연수기회 확대등에 힘써줄것등 2학기 학사기본지침을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崔駐日大使 歸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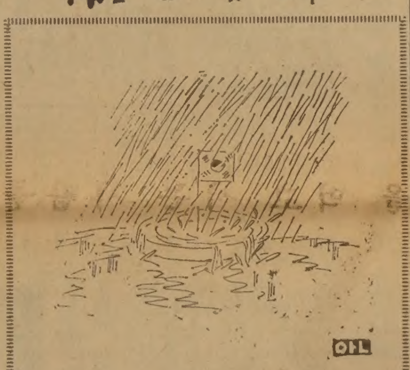
崔慶祿駐日대사는 본국정부와의 政務협의를 마치고 지난20일 하오 KAL便으로 귀임했다。지난 19일 정부훈령을받고 일시귀국한 崔대사는 盧信永외무장관등 정부고위인사에게 北傀交岐極의 日本入國과 滯日중의 정치적言動에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정부측의 훈령을 받은뒤 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地平線

유목민들이 오아시스를 찾아 양떼를 몰거나,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아랍세계에서는 도시 정확한 인구통계가 드물다。세계 최대의 사막의 하나인 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에도 마찬가지다。우리 선원들이 일했던 서부사하라의 지역을 식민지에 이르면서 면적 7만4천명으로 잡고있다。이 4천명으로 잡고있다。

[illegible]

社会漫評



「좀 왔다」하면 넘치고…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47
은 : 온스당 US 9.7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이민정착에 도움주는 〈한국일보—토론토〉

교포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번역·통역
CHARLES YU(유화서)
10 Sunrise Ave. Unit 203
Tor. M4A 2R1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 : 759-9505(5시이후)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주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R.M.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Einch Ave. E. F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IATA
월부적금제 실시
(푼돈 모아 목돈으로 여행 가능)
●서울단체 매일출발 CPA, KAL, JAL
여름철은 붐비니 미리왕복예약하십시오.
●이민및 방문초청상담, 초청장 작성
●동남아 각처 단체요금
●월부및 각종 크레딧 카드취급
●저렴한 국내선 SKYBUS및 SEAT SALE
※ 모국방문산업시찰단모집 : 9월27일 출발
(3박4일 산업시찰 포함)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김창범 536-2155·2156 (R) 429-7580

개업
꽃 집
Jane Park Garden
*생화, 조화, Plants, Gifts, 꽃바구니, 화병등 꽃에 관한 모든물품 대량구비.
*모든 축하 꽃꽂이나,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각처 주문 배달.
Eglinton W. Jane St. Alliance St. Clair W.
Jane Park Plaza
875 Jane St.
Toronto, Ont.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国会 録音

保社委

▲千命基보사장관보고‖ 정부는 사전예방활동의 강화、환자의 조기발견및 질병의 철저한 치료와 확산방지등 종합방역체제를 구축하고있다。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에 3백4개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일선防疫업무의 점검、지도강화와 함께 범국민적 자체방역계도에 나서고있다。

정부는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를 春夏季방역기간으로설정、각급방역요원및 기동방역반을 비상대기시키고있으며 부락단위 신고책임자를 지정하는등 질병발생정보 모니터制를실시하고있다。

예방접종대상은 콜레라、장티푸스、DPT、DT、폴리오、일본뇌염、홍역등 6종으로 일본뇌염과 홍역은 영세민자녀에게만 무료접종할 계획이다。전국13개海·空港검역소의 검역을 강화、입국자중 설사환자를 격리수용치료하고 5일이내 입국자는 채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사전예방대책으로 환경·식품위생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전염병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고있다。

예방接種기피 解消策은
防疫기동반運營·질병發生 모니터制실시 〈보사위〉

治水사업은 왜 인색한가
災害보고계통整備 要員3단계근무체제로 〈건설위〉

建設委

社說

積極化한 美亞太政策
—對中共무기판매등 더 熟考따라야

아시아·太平洋地域의 美軍事力강화와 이地域安保를 위한 友邦國간의 공동보조 내지 역할분담이 현실적課題로 부각되는 가운데 헤이그美國務長官은 中共訪問을 마치고 20일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東南亞國家聯合)外相회의에 참석했으며 이어 앤저스(美·濠·뉴질랜드 3국동맹)회의에 출석했다는 보도이다。때를 같이하여 美國務省의 월러스巡廻大使가 21일 來韓하여 헤이그長官이 中共지도자들과 요담한 내용을 설명하였다。그리고 오늘은 지난 1월 韓美頂上會談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양국의 經濟協力증진方策을 다루는 韓美經濟協議會가 서울에서 개막된다。

이러한 일련의 활발한 움직임은 美國 레이건行政府의 對亞政策이 종전과는 판이하게 적극화한 조짐이라고 관측되거니와 主眼點이 蘇聯팽창주의와 그「代理戰爭者」들을 견제·봉쇄하는데 설정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바야흐로 국제 정세의 숨가쁜 변천은 안이한 데탕트 政策으로 대응할바 아님을 일깨우게 한다。

작금中東地域에드리워진暗雲低徊와 더불어蘇聯軍에의한폴란드事態介入가능성이 위구되는 조건에서 韓半島를 포함한 極東地域安保를 공고히 다져둬야할 세계전략상의 절박한 당위성은 모든 友邦國간의 共同關心事이게 마련이다。소련의 代理戰爭者로 지탄되는 共産베트남의 캄보디아 침략이 구태의연한가 하면 東北亞에 또 하나의 代理戰爭者가 출현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狀況的與件을 배경으로 헤이그長官은 20일 마닐라에서 亞·太地域방위를 위한 美軍事力증강、이地域 友邦國들에 대한 軍援增額、베트남軍의 캄보디아撤收를 촉진하는 아세안諸國과의 공동보조를 거듭 강조했다고한다。또 필리핀을 무대로 준동하는 게릴라활동 진압을위한 협력도 다짐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아세안友邦들과 함께 美國의 적극적인 亞·太防衛政策을 긍정하는 입장이다。무엇보다 韓國은 가장 믿을수있는 盟邦답게 이地域의 安保를 위해 응분의 기여 노력을 항시 기필하는 용의를 가다듬고있다。그러나 아세안外相會議에 참석했던 소노다(園田)日本外相은 지난 5월 美·日頂上會談의 공동성명에서 천명된바 同盟관계에 따른 역할분담과 防衛力증강의 다짐에 대해 몹시 소극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음으로해서 그들 스스로의 公信力을 의심케하는 不協和音을 빚었다고한다。

나아가서 아세안 外相들은 미국이 中共에 대해 공격용 무기와 고도 기술장비 판매를 결정한데 대해 이유있는 위구심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져있다。그와같은 불안감에 대해 헤이그長官은 만일 美國이 실제로 中共에 무기를 판매하게될 경우에는 아시아友邦들과 事前協議할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韓國으로 말하면 亞·太防衛의 제1선에서 好戰的인 北傀와 대치하고있으며 北傀와 中·蘇간의 軍盟관계가 엄존한다는 사실을 항시 염두에 두는 입장이다。그러므로아세안友邦國이상으로 美國의 對中共 무기판매 계획에대해 심각한 관심을 갖지 않을수없다。앞으로의 事前協議가 시기를 놓치는 일 없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을 통감한다。

솔직이 말해서 우리는 美國이 對蘇견제라는 一面需要 때문에 中共의 對外政策에 깃들인 불확실要因과 특히 對北傀 軍盟관계를 간과하지 말도록 경종을 울려두고 싶은 것이다。蘇聯을 자극할것이라는등 거론은 차치하고라도 中共자체가 軍事裝備現代化이후 무엇을 할것인가 의문시되며 거시적으로 中·蘇和解가능성도 想定못할바 아니다。그이상으로 中共은 北傀의 對蘇一邊倒를 막기 위해서도 平壤측의 요구를 외면못할 처지이므로 美國이 中共에 제공한 무기와 군사기술이 北傀측에 流出되는따위事態발생의 가능성은 지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터이다。

게다가 北傀가 東南亞에서 베트남이 준동하듯이 東北亞에서 새 代理戰爭者로서 모험을 시도할는지모른다。中共이 아직도 韓國의 相互主義 門戶開放政策을 외면하면서 기회있을때마다 北傀에 대한 軍事的인 一邊倒支持를 공언하는 조건에서 美國이 그들에게 공격용 무기를 판매한다면 이는 흡사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에 기여할 처지 못될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美國의 亞·太防衛政策 적극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盟邦다운 상호信賴의 기조 위에 응분의 기여를 다짐하고자한다。동시에 우리는 美國의 벗들이 바로 그 信賴의 기대가능성을 尺度로 삼아 아시아友邦들의 자세를 재검토하는데 소홀없기를 강조해 마지 않는다。나아가서 對中共武器販賣계획은 믿음직한 前提條件의 보장이 결여된 現時點에서는 신중한 再考가 촉구되어 마땅하리라고 본다。

門戶開放과 집안團束
—逆効·不正없게 官風먼저 다져야

정부의 海外進出擴大方案은 과감한 문호개방 정책으로 획기적이다。이같은 우리 소견은、새 정책의 대강이 발표되었을 때、이미 밝힌바있다(6월17일字)。

그뒤 정부 각부처는 잇따라 소관사항의 문호개방 방안을 발표했다。워낙에 관련부처가 많은 일이라、발표내용도 여러갈래다。

하지만 연일 신문지면을 넓게 잡는 발표내용과 해설을 읽으며、약간 벙벙해지는 까닭은 그 내용이 복잡해서만은 아니다。전에는 규제가 지나치더니、이번에는 지나치게 개방을 서두는것 아닌가 —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은 것이다。이것은 정책방향의 當否와는 관계없는 시행상의 문제다。

문호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한두가지 아닐것이다。흔히 거론되는 것만 꼽아도、취업사기·외화도피의 증가、특권·사치성 나들이와 유학이 가져올 위화감조장、위장이민과 해외에서의 나라망신、병역법상의 문제、전반적인 외화사정등이 있다。이에 대하여는 당국자들도 익히 짐작하는 바로서、여러의 지적이 있자 곧 加重處罰등 補完策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솔직이 말하면 우리는「補完策을 갖추었다」는 그 발상 자체를 걱정스럽게 본다。

어떤 정책을 새로 정하면、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인데、예상가능한 부작용을 다 짚어 보고、그것을 최소한으로 막을 장치를 갖추어야、그 정책은 정책으로서 온전한것이다。따라서「부작용이 있다면 補完한다」는 투의 생각은 너무 안일하다고 할수밖에 없다。그렇게 해가지고는、모처럼 좋은 정책도 혼란에 빠져 후퇴가 부득이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거듭 말하거니와 문호개방은 당연히 추구해야할 정책과제다。그러나 무엇을 위한 개방이냐는 항상 염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바꿔말하면「개방을 위한 개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이민의 문호를 개방한다고 할 때는、지금까지 확고한 정책없이、규제만 일삼았다는 반성이 있는것이다。이런 반성은 규제를 푸는것으로 족한것이 아니라、종합적이고 치밀한 이민정책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이 있다 하겠다。말하자면 문호개방은 정책수단일 뿐이다。

해외 유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그것은 국가적인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만 의미가 있다。그렇다면 중학생의 어학연수까지 꼭 허용해야만 할까。지금 초·중등교육정책의 한 때대가『課外禁止』라고 할 때、어학연수가『海外課外』와 같은 폐단을 가져올 우려는 없는가。단적인 예일지 모르나、이런 것이「개방을 위한 개방」이 아닌가 한다。전체 교육정책과 걸맞지 않는 일면이 있는 것이다。

위의 事理는 예상되는 여타 부작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정책의 本末과 先後를 생각하여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것이다。

전번에도 本欄은 새 정책의「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計量하는 마음가짐」을 지적했었다。외화사정에 예를 든다면 外換保有高의 일정수준에 해외여행 규모를 요량해가며 해외여행을 풀어도 나쁠것은 없다。기왕에 정부에서 이민자금까지 용인할것이면、그 자금이 바로 쓰이게、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절차는 이민규제에 들지는 않을것이다。이런 장치들은 事後補完성질의것이 아니라、새 방안과 함께 마련되고 그 시행기일이 당도하기전에 갖추어져야한다。

또 당국자들이 말하는 補完策이 처벌강화에 중점이 있는듯한데 대하여도 답답한 것이 있다。아무리 처벌법규가 엄해도「일단 해외로 나가면…」하는 난점이 있는 만큼、부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도가 있어야겠다는 것이다。그렇지 못하면、문호개방에 따른 각종부정이 이 사회의「淨化風潮」를 해칠수도 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官紀다。예상되는 부정이 지금까지 없었던 유형이 아니며、거기에 공무원이 개재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엊그제 아침 보도된 취업사기 사건에서 모처 직원이 수뢰한 것은 그 보기일뿐이다。개방된 문호를 단속함에 있어서 앞세워야 할것、그것은 社會淨化·官紀團束의 초점을 해외관계에 돌리는 일임을 말해두고 싶다。

韓日의원聯盟 금년總會
來9월13일 서울서
합동幹事會서 合意

◇柳民韓총재일행 호놀룰루 到着

美洲순방에 오른 柳致松 民韓黨총재일행이 20일상오(한국시간 21일상오) 호놀룰루에 도착、호놀룰루 총영사와 동서문화센터(EWC)간부들의 영접을받았다。右로부터 金正勳총영사、孫泰[illegible]의원、柳致松총재、趙利濟 EWC총장、金鉉圭、許景九의원、유재호 EWC동창회사무국장【호놀룰루21日=崔甲植支局長】

【東京22日=宋孝彬특파원】韓日의원연맹은 22일 하오 東京제국호텔에서 가진 합동幹事會에서 금년 聯盟총회를 오는 9월13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하고 그의제로 ▲東北亞정세와 韓日양국의 역할 ▲韓日경제협력의 새방향 ▲韓日간의 교류확대 ▲在日동포의 법적지위향상등을 다루기로했다。

이날 간사회의는 한반도안전이 일본을 포함한 東北亞안전과 긴밀한 관계가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안정을위해 양국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촉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일본측대표는 全斗煥 대통령의 한국새정부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짧은시일안에 안정을 되찾아 전진하고 있는데 경의를 표하고 한국이 자유세계 안전보장을 위해 과중한 국방비를 부담하면서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므로 일본도 자유세계일원으로 응분의 對韓경제협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년반만에 공식으로 열린 韓日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에서 金潤煥(民正)한국측 간사장은 한국측 의원중에 4~5명이 일본말을 잘모르기때문에 회의진행을 한국、일본 양국어로 하겠다고 설명、이례적으로 한국측 대표들은 한국말로、일본측 대표는 일본말로 회의를 진행、이채를 띠기도 했다。

平統 諮問회의 常任委員 4百48명

한국言論研究院 현판식

한국言論研究院현판식이 22일상오11시 서울中區中林洞 한국경제신문사별관 연구원건물에서 李光杓문공부장관、方又榮연구원이사장、文胎甲한국신문협회장、李元洪한국방송협회장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사진〉 한국言論研究院은 언론인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해외연수、국제교류、언론인들의 조사연구활동등을 지원한다。

올해 韓日生絲회담 9월末 서울서開催

정부는 금년도 對日生絲수출쿼터量을 협의하기위해 9월말 또는 10월초 서울에서 韓日生絲회담을 개최키로 日側과 합의했다。지난 18일부터 이틀간 東京에서 개최된 금년도 첫 ...

會長에 成百雄씨 編輯記者會 定總

內外動靜

政局往來

"보사부는 머리와 몸통뿐 손발은 內務部에 속해"

KYOTO JAPANESE RESTAURANT

신장개업, 다양한 일본의 정통음식

템뿌라, 스시, 스끼야끼.

예약은 755—3010

영업시간 : 화~금 점심 12~2 : 30, 저녁 5~10 : 00

토~일 5~10 : 00(월요일 휴업)

주 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North of Eglington(오리올플라자내 무료 주차장)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템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863-9519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피아노테크니션 이 상 철

중고피아노 매매, 수리, 조율, 재생, 운반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TORONTO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월, 김 선 남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각종 CABINET책상, ●사무용 학생용 타자기,

●각종 종이 테이프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 532—0111, 259—5820(R)

물거품된 「西歐化의 꿈」

回教神政·中産層 마지막 승부 남아

사드르없는 이란 政局

<이세속에 빠진 휴머니스트같으니!> 【헤럴드 트리뷴紙=이란타이한紙전편집인아미르·타헤리記】

軍部、호웅 生存까진 中立

수니·시어派 衝突위험도

佛政界關心은 共産黨 入閣여부에

미테랑의 當面課題…엑스트러閣僚로 무마 가능성

◇"議席 1개 더 확보"…의자로 알려
프랑스 의회총선에서 압승을거둔 社會黨의 리오넬·조스팽 서기장이 21일 당사에서 선거결과를 발표하고있다。조스팽의 좌측에는 장·포프랑 전국서기가 총을 辛고있으며 우측에서는 한보좌관이 의석 1개를 더확보했다는표시로 의자를 들고있다。【파리21日UPI=聯合】

【파리22日=金聖佑특파원】

손잡으면 經濟·外交界발끈 拒否땐 勞組위협·背信행위

美·西獨서도「위험한先例」등 염려

◇환담하는 앤저스 外相들
22일 앤저스(ANZUS)회의 개막에앞서 美國·濠洲·뉴질랜드外相들이 환담하고있다。右로부터 두번째가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웰링턴22日UPI=聯合】

※정당별 의석분포
(4백91선거구중 4백79석개표완료) ▲增▼減

	확정의석	의회해산전	비고
사회당	282	116	▲166
공산당	43	86	▼43
공화국연합	82	150	▼68
프랑스민주연합	63	122	▼59
기타좌파	2	2	0
기타우파	7	12	▼5

佛社會黨、安定線확보

總選2차投票 4백91議席중 2백82席

불세비키的 경제統制 배제

佛、財相 사회당政策을천명

【뉴욕21日UPI=聯合】

中共、6中全會개막

【北京21日AP=聯合】

이집트、對이라크 軍事支援 용의

"對이 모든 協力중단"

【카이로21日UPI=聯合】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 폭격에 항의,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도울용의가있다고 선언하고 외교교류에서 농업및 군사협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對이스라엘협력계획을 중단시켰다고 이집트의 알·시야시紙가 21일 보도했다.

親정부계의 이 신문은 이집트가 이라크의 군사적·경제적 요구를 모두 들어줄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카말·하산·알리外相이 수일전 모세·사손 카이로주재 이스라엘대사를 불러 이같은 결정을 이스라엘정부에 전달토록 하는 한편 아마 이집트·이라크 두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오만을 통해 이라크에도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집트는 이라크가 지난73년의 중동전때 이집트에 원조를 제공해준데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란과 9개월째 전쟁을벌이고있는 이라크에 이미 무기와 탄약을 공급해오고있다.

알·시야시紙는 이어 이집트정부가 對이스라엘 접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메나헴·베긴 이스라엘 수상이 안와르·사다트대통령에게 이라크원자로 폭격을 자위적인 행위라고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나 사다트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신발송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신문은 그러나 시나이사막의 평화유지군창설에 관한 회담은 예정대로 22일 카이로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손 카이로주재 이스라엘대사는 본국외무성에 두나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절차가 취소됐다고 보고했다.

"共同성명은 拘束力없다"

美의 對日不信 우려

日、양국國防長官회담 앞두고

【東京22日=宋孝彬특파원】 일본방위청은 22일 소노다(園田直)외상이 마닐라에서 美·日공동성명은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한데 대해 당황하고있으며 이달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와인버거-오무라(大村) 장관의 국방상 회담 ·일공동성명이 법적구속력…

메아리

21일 밤에 내린 비로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이제 70여 마리가 땅에 떨어져 그가운데 48마리가 죽고 27마리가 다쳤다.

평소 백로의 서식처가 되어온 2백년생의 은행나무에는 약 3백마리의 백로가 보금자리로 삼고 있었던 것인데 믿었던 나무가지가 비바람에 꺾여 내리면서 참사를 당했다.

우리는 예로부터 백로가 집단으로 날아와 살면 마을에 경사가 난다고하여 보호를 해왔다.

또 그 흰깃과 긴다리를 지닌 자태는 우아하고 깨끗하여서 곧잘 선비의 품위에 비기기도 한다.

고려말 충신 정몽주선생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전하는 시조「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하며 창파에 조히 씻은 몸을 더럽힐까 염려했던 모정도 따지고 보면 백로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그토록 흔하게 볼수 있었던 백로도 일제때 남획하여 그 깃을 이불솜으로 삼았고 또 해방후의 남획과 근자의 개발로 인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공해로 차츰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희귀조가 되어버렸다.

산수화에 흔히 등장하여 그윽한 정취를 더해 주었던 백로도 이런추세대로 인재와공해로 수효가 줄어든다면 미구에 그림에서나 찾아볼수 있게되는 새가 될 염려마저 없지않다.

딴 새들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백로는 번식지가 불안하면 집단적으로 이주해버리는 습성을 지녔다. 수복후 얼마되지 않아서 창덕궁 숲속에는 백로떼들이 날아와 둥지를 치고 고궁의 정경에 첨화를 했었으나 서울이 공해로 찌들려는 기색을 사람보다 먼저 눈치채고 어디론가 날아가고는 다시 볼수 없게 되었다.

아직도 백로가 찾아와서 번식하는 곳은 국내에서도 경남 삼천포의 학섬을 비롯해서 전남 남의 방축리등 여러곳에 있으며 이번 떼죽음이 난 괴산도 그런곳의 하나다. 다행히 부상한 백로는 이웃 청천국교의 백로병원에서 고사리손들로 치료를 받고 있으니 회복이 되리라 믿어지나 다만 이번일로 백로떼들이 둥지를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되는일이 없도록 지역사회와전문가들의 따뜻한 보호조치가 있었으면한다.

白鷺의 참변

海外토픽

黑人사진기자 起訴

★28명黑人연쇄被殺사건

【아틀랜타(美조지아州)22日UPI=聯合】

◇28명을 죽인 殺人犯 28명의 젊은 흑인들의 연쇄 피살사건과 관련, 살인범으로 체포, 기소된 웨인·윌리엄즈。【아틀랜타21日AP=聯合】

오늘의 小史 <23일>

▲佛서 13國대표 올림픽 부활 결의 (1894)
▲獨·露 강화조약 조인 (1919)
▲유엔蘇대표 한국정전회담 제의 (1951)
▲유엔군 수풍댐폭격 (1952)
▲이집트, 民政이양 대통령에 낫세르 (1956)
▲釜山驛前大火 (1957) ▲朴대통령 平和統一정책 7항 발표 (1973)

뉴-서울

연중무휴

스시·빠 신설개업

스시카운터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EASTERN FLORAL(이스턴 후로라)무용단·
6월22일부터 출연

이스턴 후로라-무용단은 유럽각지에서 1년간에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처음 북미를 방문하여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6월22일부터 첫 공연을 갖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동 무용단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키가 같고 몸매가 고운것이 그 특징입니다. 앞으로 뉴욕과 라스베가스에서도·공연이 약속된 이 무용단에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을 모시고저 하오니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박 인 순 배

※결혼식 피로연, 각종잔치, 동창회 예약환영

*피로연, 회갑잔치등 단체파티 각자 써비스 (버페)
가격은 50명~100 명까지 1인당 $10:00
100 명 이상 초가인원은 1인당 $9씩 계산함

영업시간(연중무휴)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4시~밤10시까지)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TORONTO, ONT.
전 화: 533-3545~6, 533-1500

한국産業의 뿌리

제2의 經濟도약·重化學工業에 달렸다

石油化學육성 緊急좌담

油化산업 自給率 낮으면 國民經濟휘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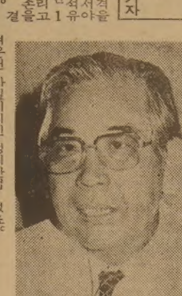
40%稼動 1천억赤字 化纖好況에 TPA는不況

政府"방관안해 安定基金 조성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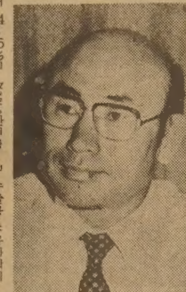
參席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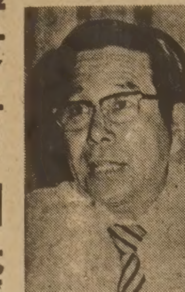
▲金善吉(商工部次官)
▲金昌圭(石油化學工業協會회장·湖南에틸렌사장)
▲李廷煥(韓國合成고무사장)
▲宋世昌(三星石油化學사장)

진행·朴炳潤기자
日時·81년6월22일
장소·本社회의실
정리·朴昊銀·林鍾乾기자


◇李廷煥사장

◇金善吉차관


◇宋世昌사장


◇金昌圭회장

麥酒麥수매가 12.5%引上

정부는 夏穀에 이어 麥酒麥과 油菜수매가격을 12.5%씩 각각 인상, 오는7월1일부터 8월말까지 수매하기로 발표했다.

22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수매가격은 50㎏2등품 1가마에 1만7천7백20원으로 책정, 지난해의 1만5천7백52원보다 12.5%(1천9백68원) 인상했다.

石炭값 재인상要因

越冬전 煉炭값 오를듯

冷藏庫싸움 1次戰판정

公正委 三星에 訂正의결

來週에는 金星광고 심의

모든鑛夫에「내집」갖게한다

86년까지 1,200억들여 鑛山村 환경개선

子女장학금 恒久的 지급

病院·유아교육시설등 擴充

정부는 35개지역 60개 광산촌에 총1천2백40억원을 投入, 광산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鑛山地域 綜合開發 5개년계획을 마련했다. 朴鳳煥동자부장관은 22일 오는82년부터 86년까지 5개년동안에 재정에서 6백63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1백27억원을 지원하고 事業主가 4백50억원을 부담, 총1천2백40억원을 들여 광산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도시와 광산촌간의 개발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광산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여건에서 석탄증산에 전념할수있도록 작업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갈수있다고 말했다.

朴動資 교사·醫療人에겐 兵役·人事특혜

◇모든 광부들에 사택을 마련해주는등 광산촌환경 개선 5개년계획을 말하는 朴동자부장관.

朴장관은 광산촌의 보건후생조건의 개선을 위해 광산촌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병역 특혜를 주고 광산지역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기위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 준하는 인사및 급여면에서 우대를 해주기로 관계당국과 협의를 마쳐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계획에 따르면 동자부는 ▲6천9백세대분의 사택을 건립하여 광산 종업원의 주택을 1백% 보급, 모두 제집을 갖도록하고 목욕탕24棟, 복지회관 25동, 어린이 놀이터및 유아교육시설 40개소를 건설, 복지 후생시설을 확충하고 ▲4백55억원을 투입, 광산촌의 도로포장, 도로개설, 도로확장, 교량가설과 하천을 정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廢石流失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72억원을 들여 상수도 13개소, 하수도 44㎞, 공동변소 51개소를 만들어 위생적인 광산촌 마을을 만드는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동자부는 珪肺症환자의 치료를위한 珪肺病院 1棟을 신설하고 보건진료소 30개소와 5개소의 보건지소를 …

綜所稅최고稅率 62%로

全經聯 勤勞所得稅 50%로 인하촉구

全經聯은 22일 현행 종합소득세율을 전면적으로 재조정, 방위세·주민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을 현행 79.05%에서 62%로 낮추는 한편 특별소비세 부과대상품목도 다시 조정해줄것을 촉구했다.

全經聯은 이날 81년도 內國稅制개선을 위한 종합건의안을 통해 현행 종합세율구조는 최저(연1백20만원이하) 6%에서 최고(6천만원초과) 62%까지 17단계로 돼있으나 여기에 방위세·주민세등을 포함하면 실질부담세율이 최고 79.05%에 달하는등 국민들의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62%로하는 전면적인 세율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全經聯은 특히 높은 물가상승및 低賃金인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된 정액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를위해 근로소득자의 최고세율을 방위세와 주민세를포함 50%로 인하해줄것을 건의했다.

IMF、緊縮政策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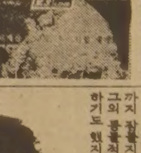
下半期 민간投資 環境개선긴요

輸出金融 늘려줘야

企協서 건의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經濟短信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Kipling·Dixon)

한의사 김 장 석

☎ : 247-9347

그림자놀이⑧

趙善作 作
禹慶熙 畫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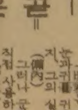
제21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1局 第7譜 113~132 (덤5집반)

左上귀 白家의 大變化

文豪의 名言

韓非 <前280?~前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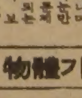
韓非는 韓王 安의 아들로 출생. 그의 신분은 庶公子였다.

法의 運用方法은 곧「術」이다

金在浩

現代人의 健康百科

中心性網膜炎



中心視力弱化、物體가 일그러져 보여

거구장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중화요리·화식·캐네디안식

※환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대소연화

영업시간 : 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가수와밴드 : 목, 금 토, 일(8시30분부터 밤2시)
가 수 : 신 현 희

특 별 메 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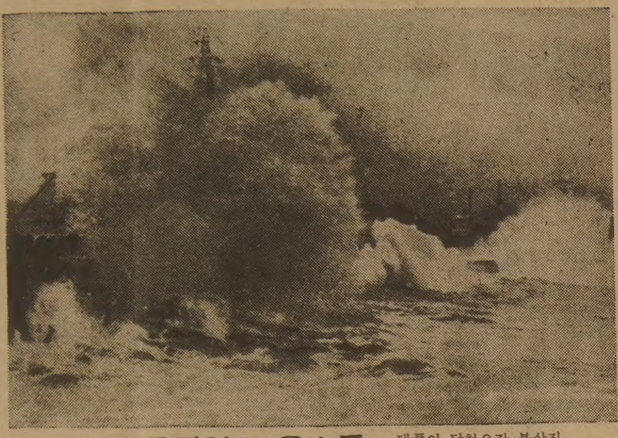
개스불로 굽는 즉석불고기	한식·중화요리·케네디안식
선지피 해장국	요리전문
멍게 생선회	2백대 수용무료파킹장

5 BETHRIDGE RD. ETOBICOKE
KIPLING×HWY 401서 1 블럭 북쪽 첫신호등서 좌회전

☎ : 742-1618 곽정렬·김선남

南海일원 颱風영향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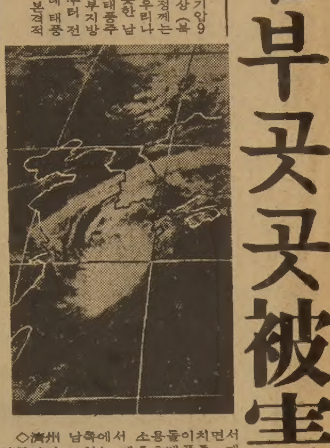
990밀리바 준號、濟州남쪽서 시속30km 北東進中



◇荷役작업도 올스톱 태풍이 닥쳐오자 부산지방해안에는 3m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고있다。 濟州 忠武 麗水등지를 운항하는 22척의 연안여객선은 모두 발이묶였고 부산항내의 모든 하역작업도 중단됐다。【부산聯合=電送】

豪雨동반 남부곳곳被害

태풍이 다가오고있고 그사이 장마전선은 주춤해졌다。 중앙관상대는 22일 중심기압 9백90밀리바인 제5호 태풍 준(C급)이 이날낮12시현재 濟州남쪽 약 1백50㎞해상 (북위32도·동경126도30분)에서 매시 30㎞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으며 23일 자정께는 全州지방과 일본후꾸오까사이까지 진출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상대는 우리나라가 이날밤부터 태풍영향권에 들게됨에 따라 이날오후3시를 기해 濟州를 비롯한 남부지방일원에 예상강우량 1백~1백50㎜의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남해일원에는 태풍주의보(예상풍향 풍속 북동후 북서풍 15~25m, 파고4~6m)를 발표했다。 남부지방의 호우는 동반하는바람이 강하지않아 큰피해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22일부터 전국에 비를 내릴것으로 예상했던 장마전선은 태풍의영향을 받아 일단 남하했는데 태풍이 지난후에는 다시서서히 북상, 오는26~27일께부터 남부지방이 장마권에들고 본격적인 장마는 7월6일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관상대는 내다봤다。



◇濟州 남쪽에서 소용돌이치면서 북동진하고 있는 제5호태풍준。 매시 30㎞의 속도로 전진하며 호우를 쏟아놓고있다。【22일정오 기상위성이잡은 태풍의 움직임】

장마는 내달初로 밀려나 「旱害」서「水害」對策본부로

農作物 피해 클듯

注意報 내려

오랜가뭄끝에 충분한 비가 내려 해갈은됐지만 일부지방에서는 호우로 농작물유실、국도유실등 호우피해가 적지않은듯하다。

한편 지난21일부터 22일상오까지 中部지방에는 많은비가 내려 春川지방이 1백82·9㎜로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지방은 90·2㎜ 大田83·4㎜ 東草65·8㎜의 강수량을 보였지만 남부지방은 그리 많지않았다。 이번비는 만주북쪽에 중심을둔 저기압의 영향을받아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렸다고。

평균 71㎜의 비가 내린 강원도의경우 春川·鐵原등 橫城 西내륙지방이 완전 해갈됐으나 三陟등 남부지방은 14·2㎜밖에 안돼 모내기에는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이번비로 華川댐은 164·05m까지 수위가 올라 하류 春川댐(만수위 1백3m)은 수위 102·74m에서 수문2개를 2m10㎝높이로 올려 초당1백14톤을 방류하고 있고 衣岩댐(만수위71·5m)은 수위 71·6m에서 수문 1개를 1m높이로 개방, 초당 1백48톤을 방류하고있다。

또 경기도는 水原20·2㎜ 仁川59㎜의 강우량으로 완전해갈상태는 아니나 거의모내기를 끝낼 상태여서2~3일 비가 더 내리면 논농사 용수는 충분할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충북은 평균43·2㎜로 남부지방은 완전해갈이 됐으나 중부지방인 陰城、鎭川、報恩、槐山등지는 아직 천수답들에 모내기를 마치지못했다。【地方綜合】

한편 21일 0시부터 22일하오3시까지 각지방에 내린 강우량은 다음과같다。(단위·㎜)

▲서울=90·2 ▲仁川=59 ▲水原=32·6 ▲淸州=52 ▲瑞山=40 ▲大田=23·3 ▲江陵=33·3 ▲春川=157·7 ▲束草=63·8 ▲群山=0·0 ▲全州=25·8 ▲光州=25·9 ▲木浦=5·4 ▲麗水=51·5 ▲濟州=28·3 ▲大邱=33·9 ▲浦項=22·3 ▲蔚山=23·2 ▲釜山=27·3 ▲忠武=23·7 ▲晋州=67·2 ▲蔚珍=16·0

1명 壓死

暴雨로 草家무너져

【麗水=聯合】22일낮12시40분께 전남 麗川郡 華陽面 龍珠里809 李正基씨(34) 초가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무너지는바람에 안방에있던 李씨등 가족5명이 매몰, 장녀 靈喜양(7)이 압사했다。 이날 상오 30㎜의 폭우가 쏟아져 3칸짜리 초가지붕이 내려앉자 주민들이 긴급복구작업을 벌여 10여분만에 4명은 구출했으나 靈喜양은숨졌다。 麗川郡은 李씨가족에게 위로금10만원과 양곡1가마 모포등을 보내는한편 앞으로있을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 관내의 위험물을 점검하라고 읍면에 긴급지시했다。

사원 株·現金등 3億횡령

美隆건설 前株式과장 令狀

서울시경은 22일 美隆건설 주식과장 徐順龍씨(32·서울城北區 貞陵1洞185의10)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徐씨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5월까지 주식과장으로 있으면서 사원들이 맡긴 美隆건설 주식 29만9천65주(싯가3억4천93만4천원)와 현금 2백48만2천원등 모두 3억4천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것이다。 徐씨는 사원 4백47명이맡긴 회사주식을 몰래 증권회사에 팔아왔는데 횡령한 돈으로 그동안 4~5명의 여자와 동거해오면서 아파트를사주는등 엽색행각을 벌여왔음이 경찰조사에서밝혀졌다。 徐씨는 지난5월중순 기획실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되자 범행이 탄로날것을알고 도주했다。

자취大學生이 夫婦刺殺

주인집어린딸 房에 끌어들여…꾸중듣고

◇살해된 金武經·金貞順씨부부.

22일새벽3시40분께 서울江南區道谷洞영동아파트54동308호 金武經씨(31·법무부운전사)집 건넌방에 세든 자취학생 金모군(19·江南사회복지대영문과1년)이 잠자던 金씨와 부인 金貞順씨(31)를 식칼로 찔러 남편金씨는 그자리에서 숨지고 부인金씨는 江南성모병원에 옮겨진뒤 숨졌다。

金군은 이날 새벽4시30분께 江南경찰서에 자수했다。 지난3월중순 보증금 20만원에 월세4만원으로 세든金군은 지난달말께 金씨의장녀(6)를 자기방으로 불러들여 괴롭혔는데、金씨 부부가 이를알고『학교에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항의하며『나가달라』고하자 보증금을 돌려달라면서 주인金씨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날 부엌에서 길이27·5㎝의 식칼을 들고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북金泉이 고향으로 금년고교를 졸업한 金군은 경찰에서『金씨부부가 내 비행사실을 알려 혼을 내주겠다고 협박해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金군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기나긴 1年 그리던 祖國품에

"꿈만같다" 感激의 해후

폴리사리오 被拉선원 48명 어제 金浦에安着

폴리사리오 게릴라들에 의해 납치·억류된후 국제적십자사의 주선으로 풀려난 한국선원48명이 22일 저녁7시50분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했다。 鄭炷年 駐제네바공사의 인솔로 귀국한 이들은 그동안 억류생활의 불안과 피로를 말끔히 씻은 밝은얼굴로 활짝웃으며 트랩을내려와 마중나온 가족들과 얼싸안고 반가운눈물을 흘렸다。 이들 선원들은 지난 16일 알제리의 수용소에서 국제적십자사에 인도된후 18일 제네바에도착, 그동안 귀국준비를하며 휴식을취해 왔었다。

왕년의「마라톤王」 사업실패 悲觀자살

【光州=聯合】전남 마라톤왕으로 불리온 吳世大씨(57·光州市北區 雲岩洞420의4)가 22일 분신자살했다。

吳씨는 이날 상오7시30분께 자신이 경영하는 光州市北區 無等경기장 제1호식당 창고에서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했는데 창고쪽에서 갑자기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본 경기장관리인 한기용씨(34)의 신고를받고 출동한 소방대에의해 시체로 발견됐다。

오랫동안 전남 마라톤대표선수로 활약해오면서 지난32회 전국체전때는 1위를차지하기도한 吳씨는 아들문수씨(26)를 마라톤선수로 키우기위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다。 경찰은 10여년전부터 無等경기장 식당을 경영해온 吳씨가 최근 운영이 제대로 안돼 고민해왔다는 아들 문수씨의 말에따라 사업실패를 비관 자살한것이 아닌가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砂金채취 合法化 희망

京畿道서 조사

경기도는 22일 漢沙里일대의 砂金채취현황을 파악하기위해 관할 漢沙里지구 개발사업소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사업소측은 조사가 끝난뒤 있을 조처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금채취사실이 보도되자 金鍾國씨(46)등 사금채취업자들은『이번기회에 합법적으로 채취작업을 할수있게돼 더많은 금을 캐낼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金씨는『사금채취장비를 조금만개선하면 골재채취에 지장을주지않고 지금의 3~4배의금을 생산할수있을것』이라고 주장、『정부가 합법적으로 채취하는길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鍼灸士法제정 促求대회

10萬여명이 無資格…質저하

전국연합침구학자 침구사법촉진위원회(위원장 李孝求)는 22일 하오1시 서울麻浦가든호텔2층 대강당에서 침구사제도 입법촉진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침구사들은 국민들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침구사제도가 양성화되지않아 전문침구사는 유사의료에 속하며 10만여명의 무자격 침술자가 창궐해도 저질화를 막을수가 없다고 지적, 침사법제도화、침사양성기관 설치허가등을 촉구했다。

最古의 太極旗 어제 還國

롤스턴翁의 長男夫婦가 91년만에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태극기가 9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끝에 還國했다。

미국 西北端 오리건州 포틀랜드市에서 발견된 이 태극기(본보1월5일자보도)는 22일하오7시 金浦공항착 KAL편으로 서울에 온 마지막 소장자 윌리엄·롤스턴(80)의 장남 윌리엄·롤스턴2세부부와 본사 趙炳南시애틀지국장의 손에들려 고국에 돌아왔다。

O·N·데니의 태극기로 알려진 태극기는 본보 보도를 보고서야「가치를 따질수없는 귀중한 보물」임을 알게된 롤스턴翁의 우정어린 배려로 아무런 댓가없이 한국국민에게 되돌려진 것이다。

롤스턴2세가 펴보인 태극기는 가로2백60㎝ 세로1백75㎝ 太極圖지름 1백20㎝의 크기였고 질긴 광목천에 紅靑의 음양무늬와 靑色의 卦를 재봉질해 붙인 모습이었는데 91년이란 세월이 의심될만큼 천은 질겨보였고 색깔또한 선명했다。

이 태극기는 1886년부터 1890년까지 4년동안 高宗의 외교고문으로 일했던 미국인 데니(1838~1900)가 1890년 본국으로 돌아갈때 가슴에 품고 갔던 것으로 데니의 별세후 그의 아내、손녀를 거쳐 롤스턴翁에게 전해졌다。

롤스턴翁이 이 태극기를 한국정부에 기증하겠다는 뜻이 전해지자 정부는 지난4월 롤스턴翁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고、롤스턴翁이 고령으로 한국방문이 어려워 그의 장남부부가 대신 이 태극기를 봉송해온 것이다。 태극기는 23일 한국정부에 공식 기증될 예정이다。

네쌍동 女兒 첫째·막내 퇴원

서울대학병원 조산아실보육기에서 자라던 李相學씨(35·운전사·서울道峰區 孔陵洞 408의53)의 여아네쌍동이중 첫째恩和와 네째恩松이가 정상체중이되어 22일하오 퇴원, 부모품으로 돌아갔다。 보육기에서 45일동안 지낸 이들 네쌍동이는 그동안 하루 평균 30g정도씩 몸무게가불어 恩和가 2·24kg, 恩松이가 2·25kg으로 이날 보육기 생활을 끝냈고 둘째恩周와 세째恩承이는 2·03, 2·15kg이어서 금주내에는 퇴원할 수 있을것 같다고 병원측은 말했다。

6·5提議수락促求 汝矣島서 궐기대회

韓國反共聯

한국반공연맹(이사장 徐鐘喆)은 오는24일 상오10시 汝矣島광장에서 북괴의 재침흉계분쇄와 6·5평화제의수락을 촉구하는 범국민궐기대회를 가진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서울시내 시민 학생、예비군、공무원등 각계 1백만명이상이 참가、북괴의 재침야욕에대한 경고와 全대통령의 6·5제의수락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반공연맹은 23일부터 서울과지방에서 반공사진전시회를 개최하며 오는7월15일부터 8월10일까지 각시도청소재지와 市郡을 순회하며 귀순용사 반공강연회도 가질 예정이다。

서울大 졸업査定 科別탈락제로

서울대는 22일 졸업정원제에 따른 탈락학생에 대한 사정을 과별로 하기로했다。

서울대 한 당국자는『계열별 사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위 비인기학과 학생들이 전원탈락할 우려가있어 과별탈락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히고『전공과정이 시행되는 2학년때 학업성적평가를 과별로 하는것이 계열별로 하는것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 과별탈락제를 채택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그러나 금년도 신입생의 경우 대량 미달사태였기때문에 이러한 사정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실제로 법대、의예과등 일부에 불과할것』이라고 내다봤다。

高大학생처장 池東植교수

高麗大는 20일자로 학생처장에 池東植교수(사학과)를、고대신문주관에 金成福교수(원예학과)를 각각 임면했다。

전쟁劇映畵 스틸展 映振公、오늘부터

영화진흥공사는 6·25전란31주년을 맞아 전쟁극영화 스틸展을 마련、23일부터 9월30일까지 同社 전시실에서 갖는다。 영화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 이번 스틸전에는 54년부터 80년 사이에 제작된 2백50여편의 전쟁영화가운데 인상적인 작품 60편을 선정、전시한다。

韓龍熙 작곡발표회

작곡가 韓龍熙씨의 連詩曲「우리 것이 아름다와라」발표회가 27일하오6시 신문회관3층 강당에서 열린다。 시인 劉庚煥씨의 작시에 곡을 붙인「우리 것…」은 全12曲으로、5천년역사의 아름다움과 조상들의 슬기를 노래했다。

「映畵演出誌」창간

映協감독위원회 학會부가 신진영화감독과 감독 지망생들의 참고서가될「映畵演出」誌를 창간、제1집을 펴냈다。 韓振영화사의 제작비 보조로 간행된 창간호에는「포르노이론」「映畵學의길」등이 실려있다。(非賣品)

종교서관
535-1920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714 [illegible]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반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장석
☎ : 247-9347

성대 동창 야유회
제1회 여름 야유회
동창 가족동반 초대
부디 참석
모든준비(음료수·불고기)는 동창회에서
1981년 7월5일(일)오전11시
BOYD CONSERVATION
(Islinton & Hwy7북쪽
회장댁 : 884-2608
총무댁 : 884-0284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흥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the Permanent
◇주택
● Yonge/Sheppard $119,000
● Finch/McCowan $139,000
● Queen/Woodbine $139,000
● Finch/ Bathurst $ 87,500
◇사업
● 가게(주 $4,000)+건물 $106,000
● 꽃가게 (1주6일 · 10am~6pm) $17,500
★주택 2차 모기지를 1차 모기지 이자율로 알선해 드립니다.
481-3443 (사무실)
745-5485 (집)
1901 Yonge St. Toronto
황순일
the Permanent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Real Estate.

제1회
"한인민족상"
시상식
수상자 : 예술상-박재훈·김용순
공로상-전택균
봉사상-장근수
※식후 다과파티
때 : 1981년 6월27일(토) 상오11시
곳 : 토론토 한인회관
(20 Mobile Dr. Tor.)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상회

아르헨·브라질·우루과이·한국

내일 準決서 激突

◇헤딩슛하는 吳錫載 올해들어 두번째 韓日대표팀간의 축구대결。장신 FW 吳錫載⑥가 日本 문전에서 점프 헤딩 슛을시도하고 있다。왼쪽에서 李太燁이달려들고 있다。【釜山=徐鍾道기자】

대통령盃 축구

한국、日本을 2—0 完破

吳錫載선제 李太燁추가골

初盤부진씻고 1차목표달성… 丁海遠·朴成華부상으로 戰力우려

한국의 花郞이 4강전에 올랐다。花郞은 21일 하오 釜山九德경기장서 벌어진 제11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예선 A조최종 5차전서 日本대표팀을 2—0으로 물리치고 3승2무승부를 기록、A조2위로 준결승에 올랐다。花郞은 24일하오5시 서울운동장서 B조 1위팀(브라질 또는우루과이)과 준결승전을 벌이게되었다。아르헨티나(라싱 데 코르도바)는 프랑스(샤토루)를 4—3으로 꺾고 4승1무승부로 A조1위를 차지했다。B조에서는 브라질(비토리아)과 우루과이(다누비오)가 준결승에 진출했다。花郞은 日本과의 대전서 3차례의 실점위기를 맞았으나 한골도 내주지않고 2—0으로 완승했다。花郞은 전반43분장신FW吳錫載가 선제골을넣고 후반32분 HB 李太燁이 추가골을 올렸다。한편 리히텐슈타인은 22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예선 최종일경기서 HB 마록서의 해트·트릭으로 인도네시아를3—2로 물리쳐 1승1무3패를 기록했다。

해설

아르헨과 再激突 가능성

12개팀이 참가한가운데 벌어진 이번대회는 한국의 花郞과 남미축구의 3강인 아르헨티나(라싱 데 코르도바)우루과이(다누비오) 브라질(비토리아)이준결승에진출、우승팀의 윤곽을 좁혀가고있다。

花郞은 13일 프랑스와의 개막경기에서 부진、4강전 진출이 어렵지않을까 걱정했으나 게임을 거듭하면서 팀웍을 다져 예선을파라는 1차적 목표를 달성했다。대표경력7년에 접어든 趙廣來의 리드가돋보였고 朴成華 洪性睦등 노장들이 열심히뛰어줬다。

특히 오른쪽날개로 기용된 신예邊炳柱가 날카로운 득점력을 과시、앞으로 슛의감각과 경험을 쌓으면 花郞의 취약 포지선이었던 오른쪽윙에 정착할가능성을보여주었다。

花郞은 丁海遠과 朴成華가 對아르헨티나전(19일大邱)서 다침으로써 전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공백을 어떻게 처리수습할지 주목된다。

AB조예선을 통해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팀은 A조1위로 준결승에 오른 아르헨티나다。花郞과 1—1로 비겼지만 국내외축구관계자들은 아르헨티나를 가장유력한 우승후보로 지목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전력은 아르헨티나보다는 떨어져 花郞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서 다시한번 격돌할 가능성이 짙다。유럽서온 西獨(자르브뤼켄) 프랑스(샤토루)몰타 리히텐슈타인팀은 예상보다 약해 유럽팀초청은 사실상 실패작이었다。

그러나 大田 全州 大邱 釜山서 열린예선전에는 매일3만명에 가까운 많은 관중이 모여들어 지난해와는 다른양상을 보여주었다。지방순회경기는 외국 선수들에게는 고달픈 여정이었다。무더위가 계속된데다가 이틀마다 환경이 바뀌고 부상선수가 늘어나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꽃】

靑龍旗야구

慶北、6년만에 覇權차지

빗속 逆轉3차례 洪淳浩 千金결승타 善隣제압 6—5

慶北高가 6년만에 靑龍旗의 주인공이 되었다。21일 3만여 팬들의 열광속에 서울운동장서 폐막된 제36회 청룡기쟁탈 전국중고야구선수권대회 결승서 慶北高는 연장전을 벌이는 사투끝에 연장 11회초 洪淳浩가 승부의 분기점을 긋는 천금의 좌전적시타를 날려 난적 善隣商을 6—5로 꺾고 3시간56분간의 접전에 종지부를 찍었다。이로써 慶北高는 75년 우승한 이후 6년만에 이대회정상을 되찾았다。

慶北은 75년도결승서도 善隣과 겨뤄、연장13회까지 3—3으로 비긴후 재경기서 3—0으로 승리한바 있다。慶北高는 79년 황금사자기우승 이래 2년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이번 대회서 慶北우익수 曺光德은 최우수와 도루상을 차지했고 慶北을 우승으로 이끈 좌완의 成埈은 우수투수로 뽑혔다。

최우수選手 曺光德·優秀투수 成埈·감투상 朴魯俊

이날 결승서 善隣은 6실점 가운데 4점을 뼈아픈 실책으로 내주어 무릎을 꿇었다。1회말 善隣은 朴魯俊의 내야안타로 선제점을 간단히 뽑아냈다。그러나 慶北은 2회초 善隣내야진의 연속 에러로 2점을 얻어내 2—1로 앞섰다。善隣도 2회말 朴志遠의 내야안타를 발판으로 2사만루의 찬스서 2번 金國鎭의 2타점 적시타로 3—2、다시 전세를 뒤집었다。善隣의 패인은 에러와 타이밍이 맞지않는 투수교체였다。7회초 善隣은 선발 朴魯俊을 金健友로 바꾸자 1사만루의 위기를 맞았다。이고비서 善隣은 야수 선택과 연속 내야 실책으로 3점을 내주어 5—3으로 뒤졌다。저력의 善隣은 7회말 趙永一의 좌전안타로 단숨에 2점을 만회、5—5타이가 되어 연장전에 들어갔다。연장 11회초 慶北은 9번 金允榮이 중전안타로 돌파구를 열고、1번 柳池逸의 희생번트와、2번 權宅率의 내야땅볼로 3진한후 3번 洪淳浩의 좌전적시타로 결승점을 뽑았다。

◇최종일결승전

경북고 0 2 0 0 0 0 0 3 0 0 1 — 6
선린상 1 2 0 0 0 0 2 0 0 0 0 — 5
〈연장11회〉

◇개인상 ▲최우수=曺光德(경북우익수) ▲우수투수=成埈(경북) ▲감투=朴魯俊(선린투수) ▲수훈=洪淳浩(경북3루수) ▲미기=金昌植(충암우익수) ▲타격=①任明善(충암3루수12타수7안타0.583) ②曺光德(경북우익수14타수8안타0.571) ③金明培(선린2루수7타수4안타0.571) ▲도루=曺光德 5개 ▲최다안타=曺光德 ▲감독=具守甲(경북) ▲지도=馬東信(경북코치)

◇프로복싱사상 여섯번째로 3體級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 알렉시스·아르게요。왼쪽은 세계적인 흥행사 돈·킹씨。

아르게요 英와트에判定勝

史上6번째 3體級타이틀席卷

WBC라이트級

【런던20日AP=聯合】니카라과의 강타자 알렉시스·아르게요(29)는 20일 웸블리경기장에서 벌어진 세계권투평의회(WBC)라이트급 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인 英國의 짐·와트를 15회 판정으로 물리치고새챔피언에 올랐다。아르게요는 이로써 페더、주니어·라이트、라이트급 타이틀을 차례로 장악、프로복싱사상 6번째로 3체급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가 되었다。아르게요는 시종 챔피언와트를 압도、7회에는 강력한 복부공격으로 다운을 빼앗았으며 와트는 아르게요의 능란한 방어를 깨뜨리지 못했다。새챔피언 아르게요는 통산 16차례의 세계타이틀매치에서 15번째 승리와 함께 67승4패의 전적을 올렸다。

10體級결승진출확정

프로복싱新人王戰…決勝戰은 28일文化體

프로복싱 81년도 전기신인왕전의 10체급 결승진출선수가 21일 확정됐다。결승전은 오는28일 문화체육관서벌어진다。

◇결승진출선수 ▲주니어플라이급=池栄五(원진규철) 金龍宋(동아) ▲플라이급=林亭植(한강) 金鍾太(원진) ▲주니어밴텀급=韓珉洙(와룡) 裵孝鎭(동근) ▲밴텀급=李敬玉(극동) 權鐵(상원) ▲주니어페더급=金先鎭(원진규철) 梁承敦(원성) ▲페더급=崔完淳(원진규철) 柳誠鉉(원진규철) ▲주니어라이트급=金星煥(상원) 金載源(청우) ▲라이트급=李憲宰(동아) 金永鎭(한국화) ▲웰터급=全海一(원진존호) 朴在容(남두) ▲미들급=李玆漢(대성) 金景淳(봉화)

朴鍾八 타이틀방어 日시바다 5回KO

프로복싱 동양 태평양권투연맹(OPBF) 미들급 챔피언 朴鍾八(21)은 21일 문화체육관서 벌어진 타이틀 9차방어전서 日本의도전자 시바다·겐지(柴田賢治)를 5회1분45초만에 KO로 물리쳤다。朴은 이로써 77년11월 프로데뷔이래 20승(19KO)1무1패、17연속KO승을 기록했다。

全美오픈 탁구大會

한국、男女팀 複式서 制覇

金浣·劉時興組、加 엔조組 꺾고

黃男淑·安海淑 中共 董玲組완파

◇金浣

◇劉時興

◇安海淑

◇黃男淑

【뉴욕=方錫暉특파원】한국의 남녀 탁구 복식조가 모두우승을 기록하고 제51회全美오픈탁구 선수권대회 남녀개인복식을 제패했다。21일(이하 현지시간) 이곳 프린스턴대학 체육관서폐막된 대회 최종일 경기서 第一合纖의 남자팀의 金浣·劉時興조는 남자복식준결승서 세계 선수권대회서 우승했던 中共의 蔡振華·李振恃 조를 21—19、18—21、21—19로 제압하고 결승서유고출신의 캐나다선수 코소노빅、엔조組를 21—17、21—17로 물리쳐 우승했다。남자탁구가 中共에 승리한 것은 한국탁구사상 최초의 쾌거다。東亞건설 여자팀의 黃男淑·安海淑 조는 이날 여자복식 결승서 최강 中共의 張德英·董玲조를 21—16、21—16으로 완파 우승했다。

東亞건설 여자팀은 20일 단체전 결승서도 3차복식서 黃·安조가 中共의 張·董조를 2—1로 깨뜨렸으나 단식에서 모두패배、토틀 3—1로 져、준우승했다。第一合纖 남자팀은 3—4위 결정전서 이탈리아에 기권승、中共、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세계정상급의 정예들을 파견한 中共은 이번 대회서 남녀단체전과 개인 단식、혼합복식등 5개종목서우승했다。

◇최종일전적 ▲남자단식결승 謝賽克(중공) 3—1 李振恃(중공)

▲남복식준결승 金浣·劉時興 2 (21-19 18-21 21-19) 1 李振恃·蔡振華
코소노빅·엔조 2—0 謝賽克·도전
▲결승 金浣·劉時興 2 (21-17 21-17) 0 코소노빅·엔조
▲여자단식결승 董玲 3—0 張德英
▲여자복식준결승 黃男淑·安海淑 2 (21-15 21-14) 0 金泰蘭·林仁子
張德英·董玲 2 (21-17 25-23) 0 辛庚淑·周成姬
▲결승 黃男淑·安海淑 2 (21-16 21-16) 0 張德英·董玲
▲혼합복식준결승 謝賽克·董玲 2 (21-12 21-16) 0 金浣·安海淑
蔡振華·張德英 2 (21-16 22-24 21-13) 1 金琦澤·黃南淑
▲동결승 蔡振華·張德英 2—0 謝賽克·董玲

◇제4일전적 ▲남자단체결승 中共 3—0 미국 ▲여자단체결승 中共 3—1 한국

대한陸上경기연맹

81년 서울 국제 J오픈 陸上경기 8월15·16양일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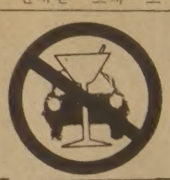
대한육상경기연맹은 81년도 서울국제주니어오픈육상경기대회를 8월15、16양일간 서울운동장서 열기로 확정하고 대회조직위원장에 張翼龍회장、사무총장에 徐潤福씨를 선임했다。

주니어 육상대회에는 59개국에 초청장을발송했으나 22일현재 미국、캐나다등 16개국이 참가신청을 해왔다。北韓은 초청장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다。

경기종목은 남자 17、여자 13종목이고 예산은 1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오는 7월25、26일에 열리는 시도대항 비호기 대회가 끝난후 대표 선수를 선발한다。

◇조직위원명단 ▲위원장=張翼龍 ▲부위원장=金昌根 金鍾錫 ▲사무총장=徐潤福 ▲총무위원장=兪賢濬 ▲경기위원장=韓泰奉 ▲운영위원장=金海龍 ▲관리위원장=鄭歡傑 ▲집행위원=崔相弘 崔星洛 陳壽鶴 安永漢 鄭日東 金慶容 宋吉允 洪京生



韓國、싱가포르制壓 亞洲학생蹴球豫選

◇첫날전적 ▲B조 한국 5—2 싱가포르 ▲A조 인도네시아 3—0 日本

日本大 2連敗 韓日대학 초청농구

日本大초청 韓日대학농구 2차전이 22일 장충체육관서 속행、日本大는 漢陽大에 66—61로 패퇴、2連敗했다。日本大는 1차전서 中央大에 65—64로 분패했다。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743-8224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894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241-2544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30 금요오후7:00	38 Ellerslie Av. Yonge과 Finch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925-852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예화삼	주일오후 2:0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백낙순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466-4621 466-9511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백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용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8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생명의전화 755-9766 755-1520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마음의양식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블론디 딘·영 作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老恩師와의 再會

나의 이력서
<國字·文 信 圭>
文信圭 ⑱

九州大방문 敎授상면

村長으로있는 고게쓰敎授찾아 새生活哲學배워

[illegible]

◇한적한 농촌의 村長으로 老年을 보내고 있던 고게쓰교수부부。58년봄 筆者는 이 老恩師와再會,한번더 생활철학을 새겼다。

= 매표개시 =
본지 일간발행 기념
노래·만담의 향연
매표소 :
각식품점및 본사

流星의 賦 <11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紀昌의 길 ㉛

[illegible]

[illegible]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한 국 관
웨이트레스 1명, 웨이터 1명
☎ : 536—0290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스토아 여자 캐쉬어 구함
(토, 일요일, 12~8시까지)
☎ : 921—0624

입주하시거나 출퇴근하셔서 애기 돌보아 주실분
오후6시 이후 연락
☎ : 535—4441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 362—2300

파타임 스토아 헬퍼구함 :
빅토리아·팍과 댄포트
☎ : 759—7501

베이비 씨터 구합니다.
☎961—6647 미스타 최

지렁이잡이 원함(유경험자) :
흰치와 웨스톤지역, 최고가격
☎ : 243—7736 미스터 리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1) 풀타임 헬퍼 남자 주5일(60시간)시간당 $6
트럭운전, 영어요함.
2) 토, 일요일 남자 파타임 요함.
3) 가정일 돌보실분 오전8시~오후5시, 출퇴근,
월~토요일까지, 주6일, $100.00
☎ : 762—1572(B), 769—9854(R) 미세스 김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MONAMI JAPANESS R. : 웨이트레스
(11 : 2PM)월~금요일, 114 Laird Dr., Leaside,
☎ : 421—6016(Mr. Masuda) Call after 2PM

매매및 양도

벡 커 매매
연매상 30만달러
☎ : 783—1984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
몰렌 NEW STORE PLAZA안 에 위치
주매상 $5500+ 로타리오
TICKET SALE(월 $15000)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855 JANE ST. TOR. ONT.

성업중인 햄버거 샾 급매
다운다운지역
☎ : 535—2804

스토아 매매 : OPEN WINDOW BAKERY및 그로서리가게
이주관계로 매매, 직접내방 상담요망
1550 BLOOR ST.

몬트리올 영어지역 스토아 매매 :
주매상 $6000~6300개런티, Asking $60000+스탁,
Cash $55000이상, 맥주와 와인 취급하며 배달 없음.
주위에 새로운 빌딩 건설중임
☎ : 1—514—486—0944

밀크스토아 급매 :
☎ : 277—3745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SET UP중인 가게를
급매코자 합니다.
☎ : 968—9221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 465—400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밀크스토아 매매
4630 KINGSTON RD.
☎ : 282—7596

DONNA LIA FRUIT : 성업중인 가게를 매매합니다.
주매상 $6000.
☎ : 654—7240 1362 ST. CLAIR W.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맥스밀크 양도 : 년매상 34만불 상하,
상하, 년순이익 4만불 상하,
재고 2만5천불 상하, 권리금3만5천불,
리스8월10일 1984, 옵션10년
600 The East Mall Rd.(East Mall Rd. at Rathburn Rd.)
☎ : 622—6155, 762—1264

그로서리 스토아및 빌딩 팝니다 : 이층 벽돌 건물이며
장래성이 많고 TUCK SHOP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음.
☎ : 781—7080 458 CALEDONIA RD.

그로서리 가게 매매(경쟁없음)
주매상 $4500이상, 리스5년+옵션5년, 렌트 월 $995
(윗층 살림집5개룸 포함)
ASKING $42000
9 KINTYRE AVE. TORONTO, ONT.

주인이 은퇴상 팔려고 하는 이윤좋은 비즈네스.
에토비코에 쇼핑 얼안에 있음 ASKING $95,000
☎ : 233—9866

아이스크림 기계 팝니다 :
☎ : 535—7772, 439—8885 (오후6시 이후)

물건판매 : KEY MADE MACHINE, WINDOW SHOW CASE, CASH REGISTER, REFRIGERATOR,
☎ : 362—3592

가게EQUIPPMENT매매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고깃간등
☎ : 653—6366 9~5시
292—0332 6시이후 칼멘

OPEN 하우스
토, 일요일 오후1~3시, 평일 오후6~8시
10.5% 몰게지 시작, LANSDOWNE서브웨이 가까운지역
6룸, 2키친, 현 이자율에 비해 4년동안 $2500 세입
가능, ASKING $69,900에 약15000다운
☎ : 232—2200 JOHN SCHWEIGEL
RED ROSE R E LTD REALTOR

버라이어티 스토아 SET UP사실분
렌트 $350, 리스6년+6년 옵션
☎ : 465—6247 JACK PONG

픽업 세탁소 SET UP하실 분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아주 싼 값에 팝니다.
☎ : 487—5000

가게매매 : 직접내방원함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1385 WESTON RD.(제인×웨스턴)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 (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1)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2)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 : 751—5851 이 동 환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 나 라 운 수
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미 용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크 리 스 티 미 용 실 (크리스티 서브웨이 건너편)
남녀 노소 커트, 셋트, 파마 전문
727 Bloor St. W. (B) 533—2569, (R) 967—1518 미세스 박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3 0656(B). 493 7185(R)
정 해 문(흰치×킬)

VISA master charge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액숀조정, 건반, 캐비넷칠, 중고매매조율김 수 웅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 466—4304, 469—3341 박 기 용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기 타

사람을 찾음 :
천두섭 딸 천혜경 찾음 76년 왔음, 서울 을지로 5가
창림사 이태희 씨애를 ☎ : 1—206—329—5903

영어개인교수지도함
상세한 문의는
☎ : 279—7433 EVENING

BEAR PAWS, GOAL BLADDERS
웅담 팝니다. ☎ : 463—3572
오전10시~오후7시(월~금)

여행사관광 코스(학교)가르칩니다.
7월과 9월에 코스가 시작되며, 낮반과 저녁반이
있읍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363—3286으로
전화하십시요.
바트리 INSTITUTE OF TRAVEL
MR. ZONENBERG

The Korea News
신문구독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일간발행 기념

교포위문대공연!!

●최고의 인기 정상가수 총출연 ●최고의 가수진 ●최고의 캄보밴드 ●최고의 코메디안

◎일 시 : 1981년 7월3일(금) 7시30분

◎장 소 : CENTRAL TECHNICAL SCHOOL
(BATHURST & HARBORD)

◎입장권 : $12.00, $10.00

〈입장권 예매처〉

●본 사 ●한 국 관 ●고려식품 ●단풍식품 ●동양식품
●삼복식품 ●서울식품 ●한국식품〈동부, 서부, 본점〉

주최 : 한국일보사